



HOME > 전국 > 충청호남

지리산 가을 문화축제의 향연...화엄사 '길 위에 서다' 폐막

〓 이경민 기자 | 〓 승인 2021.10.03 19:22 | 〓 호수 3686 | 〓 댓글 0



천년고찰 화엄사 '화엄문화축제가 10월3일 폐막했다. 화엄사를 찾은 방문객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천년고찰 화엄사 문화축제가 10월3일 화엄음악회로 지리산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10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간 진행된 이번 화엄문화축제 주제는 '화엄, 길 위에 서다'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고 지쳐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혜의 자연 속 천년고찰에서 문화축제를 즐기며 치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를 지키며 진행된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세 번째 프로젝트인 '삼보사찰 천리순례'와 함께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며 진행됐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부처님께서도 2600여년 전 길에서 나서 길에서 진리를 전하다 길에서 열반에 드셨다"며 "이런 부처님 뜻을 이어받아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중흥 원력을 있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려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순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마지막날 열리는) 이번 화엄음악제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함께 하게 돼 더 기쁘다"며 "10년에 이르는 동안 보수와 단장을 마친 사사자 삼층석탑이 보수 복원 공사 화환식을 마치고 개최되는 만큼 화엄음악제를 통해 국민에게 위로와 치유 메시지를 선사하고 구례군민에게는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화엄'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리산 가을밤을 수놓은 화엄음악제에서는 정호승 시인이 시를 낭송했으며 박정선 명창의 남도 민요, 여성 전통 타악 그룹 도도의 퓨전 타악, 가수 소찬휘가 부르는 대중가요 등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이 개최됐다. 화엄사 문화축제를 찾은 방문객을 물론 삼보사찰 천리순례 150여 명 대중이 음악회를 즐기며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법화경 화금경판 석각 및 판각대작불사

서각(판각)	원문	십만원/1자
	108자(한편)	오백만원/1판
전각(석각)	원문(한편)	백오십만원
	팔상도/(한편)	백만원/(1편)
	팔상도/전도	일천만원/(1판)

팔공총림 동화사 053-980-7973

불교신문TV

[더보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2-1...]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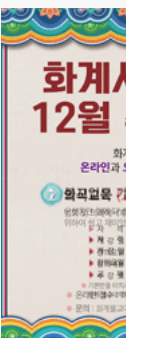
색선별 최신기사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

많이 본 기사

- 1 [원과스님의 ...]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문수성지서 첫...
- 7 현등사에 '부처...]
- 8 [삼보사찰 천리...]
- 9 [삼보사찰 천리...]
- 10 [삼보사찰 천리...]



최신뉴스

- 영축총림 통도사, 13...
- (사)경남파라미터청...
- 영축문화재단, 제9회...
- 선각자 '백성욱 박사...
- 내 마음과 세상을 밝...
- 목련존자 지극한 효...
- 한옥목수의 촌집수...
- 즐거이는 삶을 시작했...
- 국가경영은 세종채...
- 전국비구니회 '주어...

아울러 삼보사찰 순례단을 이끄는 회주 자승스님이 상월선원 결사를 상징하는 장군 죽비를 주지 덕문스님에게 전달하며 순례단에 대한 화엄사 대중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앞서 화엄사는 첫째날 걷기 대회와 영화 상영, 둘째날 과불재와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불자들과 구례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또 보제루에서 사경전시회, 성보박물관에서 불화전시회를 개최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구례군민이 위로받고 모든 존재가 서로 화합하는 화엄법계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화엄사는 9월29일부터 7년여의 보수작업을 통해 복원한 국보 화엄사 사자자삼층석탑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이끄는 회주 자승스님(사진 오른쪽)이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에게 장군 죽비를 내리고 있다.



화엄문화축제 마지막날인 화엄음악제. 혼성중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종단 전국비구니회, '주어사-천진암 종교 공존...
전국 영축총림 통도사, 1376주년 개산대제(開...
사회&국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청래 의원...
인물 [본-말사 주지 인사] 2021년 9월 30일 종...
대중공사 [포교현장에서] 청년회의 또 다른 줄...
수행&신행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3급 전문자...
문화 은은한 차향에 담긴 '조계사 예불소리'의 ...
기획&연재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
출판&문학 선각자 '백성옥 박사' 삶과 가르침...
학술&문화재 "이웃에게 큰마음 내는 게 수륙...
복지&상담 "수제 비누와 삼푸, 이웃과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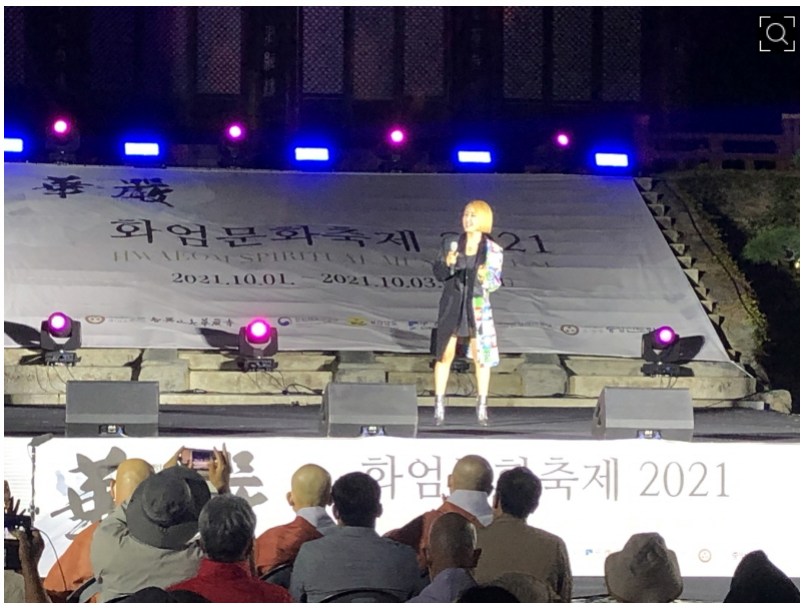


법공양 (기획PR)





공연을 즐기는 관람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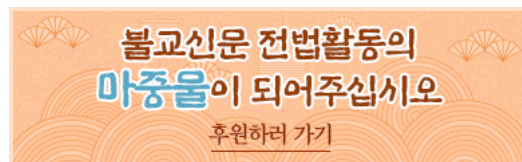


가수 소찬휘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구례=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maha0703@ibulgyo.com

저작권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6년만에 국민에게 돌아온 효대 4사자상충석탑과 ...
- 지리산 화엄사는 한국茶的 분향.. 불교 차문화 선...
- "화엄 사상의 진수 보여주는 성보들"
- 구례 화엄사, '어머니의 길' 선포하고 걷기대회 개최

댓글 0

저런 남쪽 선인이 빠뜨리너.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